

카셀도큐멘타·윈스터조각프로젝트·베니스비엔날레·바젤아트페어·데미언 허스트...

영상으로 만나는 그랜드 아트 투어



카셀 도큐멘타, 윈스터조각프로젝트 등 4개 미술축제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2017 유럽 Grand Art Tour-다큐 르포&미디어아트 전시영'전의 모습. 전시는 8일부터 30일까지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Media 338'에서 열린다.

'미디어 338' 8~30일 '진시영의 다큐 르포&미디어아트'전

17일간 유럽서 담은
전시장·작품·관객...
영상 재구성 전시

2007년 현장도 상영
세계 예술계
10년 변화상 한눈에

책으로 구현한 파르테는 신전, 지하 철로를 걸어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기묘한 모습으로 전시장을 거니는 퍼포머, 갤러리를 압도하는 푸른색의 대형 설치작품,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로 들여다 보는 관객의 모습...

6일 오전 광주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Media 338'. 경쾌한 음악에 맞춰 영상 속에서 쏟아지는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감상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전시가 열리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멀리 유럽까지 날아갈 수는 없는 터. '궁금했던' 작품들을 영상으로나마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올해는 10년만에 돌아온 '그랜드 아트 투어'의 해로 미술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10년 주기의 윈스터 조각프로젝트(6월 10일~10월 1일) 5년마다 찾아오는 카셀도큐멘타(6월 10일~9월 17일), 2년마다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5월 13일~11월 26일)가 '동시에' 열리는 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열리는 바젤아트페어, 세계 미술계 스타 데미언 허스트의 신작 공개까지 이어져 광주에서도 현지로 아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미디어아트 작가 진시영씨도 그 중 한명이다. 그는 단순히 '관람'과 '공부'가 아닌, 작품 제작을 위해 4K 카메라를 들고 현지로 떠났다.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미디어아트 창의공간 'Media 338'에서 만날 수 있는 '2017 유럽 Grand Art Tour-다큐

르포&미디어아트 전시영'전이 그 결과물이다. 진 작가는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Media338 아카이브 릴레이전' 참여작가로 선정돼 이번 기획을 진행했다.

17일간 현지에서 머문 진 작가는 각 전시팀의 공식 허가를 얻어 유명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과 전시장 풍경, 관객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상을 재구성, 다큐멘터리 비디오 프로젝트 전시를 꾸렸다.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5개의 영상 작품이 다양한 장면들을 쏟아낸다. 각각의 전시별로 5분씩 편집한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입구에는 여행 에피소드를 담은 영상(5분)을 전시 중이다.

영상에서 만나는 화제작은 아테네 파르테는 신전을 전 세계 10만권의 금서를 활용해 재현한 마르타 미누현의 '책의 파르테는', 카셀에 등장한 김수자의 '보따리', 사람이 물 위를 걷는 듯한 작각이 드는 '물 위에서' 등이다. 또 베니스 비엔날레의 21개 국가관 작품들과 750억원을 쏟아 부은 데미언 허스트의 신작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비밀'도 만날 수 있다.

또 하나의 영상은 2007년 작품이다. 진 작가는 2007년도 '뚝갈이' 4대 미술축제 현장을 방문, 촬영을 진행했고 당시 롯데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영상은 세계 예술계의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다.

4K로 촬영한 영상은 생생하며 특히 바젤 아트페어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는 최첨단으로 깨끗한 화질을 자랑한다. 관람은 각각의 전시장을 방문하듯, 영상을 순차적으로 관람하면 된다. 각 영상마다 워낙 흥미로운 작품이 많아 한두번 보고 전시장을 나오기는 어렵다. 시간을 갖고 넉넉히 관람하면 좋을 것 같다. 전시를 보러 가기 전 '화제 작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알고 가는 것도 다큐 영상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전시장이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어 촬영하는 데 정말 힘들기는 했지만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그만큼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역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장소를 확장한 점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 등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전 행사 모습을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시 오픈식은 8일 오후 5시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러 갤러리에 들렀다면 바로 옆에 자리한 '미디어 아카이브'에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이남, 정은학, 이조흠, 정선휘 등 지역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 볼 수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4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니스에서 공개된 데미언 허스트의 신작에는 75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광주시립발레단 '영·호남 무용단 교류 3C' 공연

내일 문예회관 소극장...대구시립·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참여

광주시립발레단이 '영·호남 무용단 교류공연 3C : 세씨'를 선보인다. 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 30분.

'3C : 세씨'란 광주, 대구, 전북 세 도시 3City, 세 도시를 대표하는 춤의 향연 세 가지 색 3Color, 클래식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세 개의 춤 3Choreograph를 의미한다. 영·호남 무용단 교류공연은 지난 2015년 '2018년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을 비롯해 대구시립무용단(예술감독 홍승엽),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단장 김수현)이 참여한다.

첫 무대는 대구시립무용단의 현대무용 작품 '볼레로_이별의 슬픔'이다. '천재 화가 고(故)이중섭의 가족 간의 이별'과 '남북 이산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2인무로, 홍승엽 예술감독 특유의 연출력과 여성무용수들의 특유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음 무대는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왕의

순행(巡幸)'이다. 2016년 초연한 작품으로 조선시대 임금의 행렬을 맞아 펼쳐지는 연향(宴享)에 초점을 맞춰 궁중정재(正才)의 향연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조선 태조와 관련된 당악정제(唐樂正才) 양식의 춤인 '금척무'와 '태평무', '버꾸야, 놀자'를 펼친다.

끝으로 광주시립발레단은 '지젤'을 공연한다. 낭만발레의 대표작 '지젤'은 1941년 파리 오페라좌에서 초연된 이후 7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아온 클래식 발레이다.

시립발레단이 선보일 '지젤' 중 2막 '어두운 밤, 깊은 숲 속의 무덤'은 죽음의 두려움을 애뜻하고 송고한 여인, '지젤'의 사랑을 아름답지만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푸른 달빛 아래 로맨틱 튀튀를 입은 슬픈 오정 '월리'들의 군무도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 가격 S석 2만원, A석 1만원. 전화예매(062-613-8234)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의 '지젤' 공연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내일 조송식 교수 초청 강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하정웅미술관은 8일 오후 7시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조송식(사진) 교수를 초청, 인문학 강좌 '자유로운 나를 위한 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 주제는 '화가의 자아상과 험한 세상을 건너는 동인들'이다. 조 교수는 동양의 옛 그림에 나타난 화가의 자아상과 험한 세상을 함께 건너는 동인(同人)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화가의 자아가 드러나는 유형의 작품을 자화상·인물화·화조화·산수화 등으로 구



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담긴 시대상을 탐구한다.

홍익대 서양학과를 거쳐 서울대 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조 교수는 대동고전연구소(소속서당)에서 한학을 연수했다. 저서로

'산수화의 미학', '중국 옛 그림 산책', '한국의 미술과 산림문화' 등이 있다. 무료 강좌. 문의 062-613-5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빛고을 학생 시조 백일장' 작품 공모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는 제15회 전국 빛고을 학생 시조 백일장 작품을 공모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소재와 주제에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5일까지며 1인 1편 이상이면 된다. 응모 작품은 지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작품 끝에 학교와 학년 반, 집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결투부에 '제15회 전국 빛고을 학생 시조 공모전

응모 작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접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동로 258번길 46, 101-1011(해광)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사무국 백일장 담당자 앞(enterkkh@naver.com)이며, 명망이 높은 시조시인이 심사를 담당한다. 입상자에게는 10월 중 학교 또는 개별 통보한다. 시상금은 대상(초·중·고등부 각각 1명),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약간명. 참가비 무료. 문의 010-9983-8548, 010-5809-7725.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